

편집인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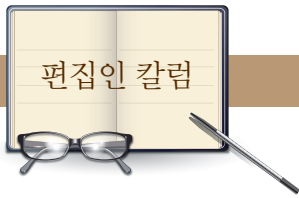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

바야흐로 따스한 햇살을 타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계절입니다. 한가하게 아지랑이를 감상한 기억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봄의 전조인 산수유에 이어 매화가 꽃봉오리를 내밀고, 목련의 화려한 자태를 기다릴 때면 봄은 이미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금년 봄은 4.11 총선과 함께 무르익어 갑니다. 선거의 해인 금년은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가 화두입니다. 무상의료가 정치적 구호를 넘어 어느덧 정책공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상의료의 대표적인 영국 NHS는 과연 우리의 이상향일까요? NHS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무상이긴 하지만 의사 만나기 어려워 기다리다가 병이 낫거나 병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의료자원도 부족하여 풍족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영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한국은 환자부담이 상당하지만 편하고 쉽고 의료자원이 참으로 풍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무상의료이면서 의료접근성도 좋고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풍족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재정부담도 크지 않은 의료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 좋고 정자 좋은 의료 환경을 가진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OECD에 맡겼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가 금년 3월 1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료는 과다한 병원 중심의 의료를 일차의료로 전환해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병원에 DRG를 도입하고 일차의료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료의 질을 보건의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고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의 질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의 강점을 활용하여, 건



강보험자료를 포함한 여러 의료정보자료를 연결하여 전자환자의무기록(electronic patient history)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선진국 의료의 표준에 도달할 것을 제안한 점은 과거 IMF가 한국에 대해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지킬 것을 권고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Raising standards”를 보고서의 부제로 달았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점은 한국의 전 국민에 대한 의료정보화 인프라는 세계를 선도할만 하며, 그 강점을 십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대략의 흐름은 보험급여의 범위를 보편화해나가는 데에 큰 반대는 없는 듯 합니다. 적용인구를 보편화 했듯이 보장의 범위도 보편화하는 것이 대세인 듯 합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는 재원부담이 따라야 하니 환자본인부담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거나 서서히 낮추도록 하되 급여의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되 본인부담은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급여범위가 보편화되면 신기술의 급여는 매우 신중해질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의 도입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급여의 보편화에 수반되는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의 진료량을 통제하기 위한 진료비지불방식이 논의의 핵심이 됩니다. 즉 진료량을 제어하면서 질을 훼손하지 않는 지불방식의 선택이 어려운 과제로 떠오릅니다. DRG 방식의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DRG 방식을 넘어 진료비 총액의 관리기전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보완적인 지불방식인 성과기반보상(P4P, pay for performance)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질 향상과 비용 절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투입에 대해 보상하는 종별가산율이나 간호등급제와 같은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나가는 제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OECD의 제안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생각이 크게 괴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접근성-비용-질의 황금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유럽식 무상의료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미국식 의료도 아닌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식 의료로 창조해나가는 데에 보수와 진보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과 환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겠습니다. 